



"여든 살 난 큰아기가 시집가랬더니 차일이 없다 한다"

뜻: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했던 중요한 일을 막상 하려고 하니,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장애풀 · 기회 · 좌절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여	든	↓	살	↓	난	↓	큰	아	기	가
시	집	가	랬	더	니					
차	일	이	↓	없	다	↓	한	다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여	든	↓	살	↓	난	↓	큰	아	기	가
시	집	가	랬	더	니					
차	일	이	↓	없	다	↓	한	다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↓			↓				
			↓			↓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오 드] [사] [나] [큰 아 기 가] [시 집 가 래 트 더 니] [차 일 이] [없 다] [한 다]

웹에서 보기

